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9년의 스톤월 항거(STONEWALL REBELLION)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발표

스톤월 항거(Stonewall Rebellion) 기념일에 맞추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진행될 문화행사

뉴욕이 주최하는 2019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성소수자 프라이드(LGBT Pride) 기념행사인 스톤월 50 / 월드프라이드(Stonewall 50 / WorldPride) 행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년의 스톤월 항거(Stonewall Rebellion)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1969년 6월,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GBT) 공동체 구성원들은 뉴욕시의 스톤월 인(Stonewall Inn)에서 현대 성소수자(LGBT) 권리 운동의 촉매제로 여겨지는 자발적인 시위를 가졌습니다. 주정부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문화행사들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뉴욕은 2019년에 가장 큰 국제 성소수자 프라이드 기념행사(LGBT pride celebration)인 스톤월 50 / 월드프라이드(Stonewall 50 / WorldPride) 행사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스톤월 항거(Stonewall Rebellion)는 성소수자(LGBT)와 뉴욕 역사 양쪽 모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들과 운동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억함으로써 이 주와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입니다. 미국 전 지역과 전 세계에서 뉴욕을 방문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풍부한 유산을 둘러보게 될 방문객들을 환영하면서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행사와 함께 개최되는 스톤월 항거(Stonewall Rebellion) 50주년 행사는 성소수자(LGBT) 권리 옹호자들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스톤월 항거(Stonewall Rebellion) 5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뉴욕주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스톤월 50 기념행사 위원회(Stonewall 50 Commemoration Committee)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주정부 기관, 성소수자(LGBT) 공동체 그룹, 박물관 및 문화 기관, 관광산업 전문직 등을 대변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스톤월 50(Stonewall 50) 기념일에 맞추어 뉴욕시는 2019 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성소수자 프라이드(LGBT Pride) 기념행사인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행사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성소수자 프라이드(LGBT pride)를 홍보하는 퍼레이드, 공연, 페스티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스톤월 50(Stonewall 50) 행사와 월드프라이드 뉴욕(WorldPride New York) 행사를 위해 뉴욕주를 방문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뉴욕주와 아이 러브 뉴욕 성소수자(I LOVE NY LGBT) 주최 측이 2017 년과 2018 년에 걸쳐 주요 국제 및 국내 프라이드 행사 및 기타 성소수자(LGBT) 행사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와 뉴욕주를 보기 위한 여행을 촉진시키려는 스톤월 50 / 뉴욕시 프라이드 (프라이드의 유산) (Stonewall 50 / NYC Pride (Heritage of Pride)) 행사의 조직자들 사이의 공동 활동일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스톤월 50(Stonewall 50) 기념행사 및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행사를 둘러싼 뉴욕시의 아이 러브 뉴욕 성소수자 웰컴 센터(I LOVE NY LGBT Welcome Center)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웰컴 센터는 뉴욕주의 성소수자 (LGBT) 여행 목적지 및 뉴욕주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스톤월 50(Stonewall 50) 행사들에 대한 정보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Howard Zemsky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취임 첫날부터 동등한 권리를 행정부에 우선 과제로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은 성소수자(LGBT) 운동에서 뉴욕주의 역할을 기념하기 위한 엄청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정부가 관광산업에 대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지켜온 점에 대해, 특히 성소수자(LGBT) 방문객을 환영하려는 노력에 대해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2019 년으로 계획된 기념행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 주지사는 또한 성소수자(LGBT) 공동체, 2016 년 6 월 올랜도 소재 펄스 나이트클럽(Pulse nightclub)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 증오, 편협성, 폭력 등의 모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뉴욕의 공식 추모비의 디자이너로 Anthony Goicolea 씨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추모비는 허드슨 리버 파크(Hudson River Park)의 그리니치 빌리지 서쪽 가장자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Cuomo 주지사는 성소수자(LGBT) 권리를 옹호하는 국가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2011 년에 뉴욕은 역사적인 결혼 평등법(Marriage Equality Act)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사회의 가장 커다란 불평등 중 하나를 종식시킬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국에 보냈습니다. 2013 년에 주지사는 성소수자(LGBT) 기념 장소를 강조하고 매년 국내 여행에 700 억 달러를 지출하는 성소수자(LGBT) 여행객들의 방문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 러브 뉴욕 성소수자(I LOVE NY LGBT)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2015 년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성전환자들이 뉴욕주 인권법(State's Human Rights Law)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법규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관 고용주, 주택제공업자, 기업인, 채권자 및 기타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불법이며 뉴욕주 어디에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음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 산업에 전례없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2016 년, 뉴욕주는 650 억 달러 이상을 소비한 2 억 3,900 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관광객을 맞이하였으며, 3 년 연속 총 1,000 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뉴욕주에서 4 번째로 큰 고용산업이며 매년 914,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